

# 600년 만에 밝혀진 묘 주인공 : 창화공 이야기

권선홍(부산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살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 600년 넘도록 실전(失傳)되었다고 믿어왔던 조상 묘를, 그것도 묘지석이란 기록물을 결정적 증거로 삼은 대법원 판결(2004년 12월, 2004다15003)로 찾게 된 일도 그렇지 않을가 싶다.

비무장지대인 파주 진동면 서곡리 산 112에서 ‘고려 벽화묘’가 발견되었다. 이곳은 청주한씨 문열공 한상질 일가의 묘역으로 북쪽 묘를 한상질 묘로, 남쪽 묘는 부장품을 넣은 부장묘로 알고 지나왔다. 그러다 청주한씨 종친회에서 부장묘 내부 벽에서 그림으로 판단되는 채색이 보인다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제보하여, 1991년 1월에 중앙박물관 학예실장과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 등이 현지답사한 결과 벽화묘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청주한씨 종친회의 동의와 국방부 및 관할 군부대의 협조하에 그해 4월 초부터 문화재연구소와 국립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 등의 합동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993년 7월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에서 [파주 서곡리 고려벽화묘 발굴조사 보고서]를 펴냈다.

남한에 전하는 고려시대 벽화묘들은 형식과 크기에서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잘 다듬은 판석(板石)이나 사각돌을 벽체(壁材)로 사용하고 넓은 판석을 이용하여 전정석으로 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며, 고대의 벽화묘들과 비교하여 크기가 현저히 작은 편이다. 이 벽화묘 역시 화강암 판석을 이용하여 묘를 만든 예에 속한다. 발굴조사 결과 길이 394cm, 너비 202cm, 깊이 103cm 규모의 장방형 수직광 안에 시신을 안치하도록 조성한 길이 285m, 너비 118m, 높이 128cm의 화강암 석곽(石槨)이 있고 그 안에 목관(木棺)을 안치하였다. 다시 그 위를 봉토 처리하여 지름 420cm, 높이 150cm의 원형봉토본(圓形封土墳)으로 완성하였다.

고분 내부의 벽면이나 천정에 그림을 그려 넣는 벽화의 전통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확립되어 고려시대로 이어진 것이다. 이들 벽화의 주제는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받아 동서남북 방향으로 사신도(四神圖)와 함께 별자리 그림[星宿圖] 등이 나타나지만 이전의 표현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며,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과 같은 소재들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즉 삼국시대 고분벽화의 주제로는 생활 풍속·장식 무늬·사신 등이 있었다. 특히 고구려 벽화에서 사후 세계를 표현할 때 별자리와 사방을 관장하는 사신도를 함께 그렸다면, 고려 벽화에는 방위와 동시에 시간을 나타내는 십이지신상이 별자리 그림과 함께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특징이다. 주목할 점은 통일신라 왕릉이나 고려 왕릉의 병풍석에 새겨져 있는 십이지신상은 사람 몸에 십이지 동물 머리를 한 인신수형像(人身獸首形) 도상인데, 고려 고분벽화의 십이지신상은 사람의 몸을 하고 머리 위에 십이지 동물이 표현된 관을 쓴 인신수관형(人身獸冠形)으로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이 벽화묘에는 석곽의 동·서·북 3벽 내면과 문비석(門扉石) 내면에는 공민왕릉 벽화처럼 예복을 입고 홀을 든 채 십이지신상의 관모를 쓴 인물상이 그려져 있고, 전정석 중앙에는 북극성과 북두칠성, 삼태성을 그려놓았다.

벽화는 먼저 회칠(灰漆)을 한 후 그 위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림을 그리는 예가 대부분인데, 여기서는 돌벽면에 회칠을 하지 않았다. 즉 음각선으로 인물상의 윤곽을 잡고 그 위에 묵선(墨線)을 그어 그렸는데 얼굴의 세부와 손에 흰 홀(笏), 넓은 소매의



주름 등은 잘 다듬은 돌벽면에 직접 묵선으로 그렸고, 머리에 쓴 책(幘)으로 보이는 관모(冠帽)와 코 입술 볼 등과 긴 옷고름, 허리에 맨 넓은 띠 등은 묵선으로 밑그림을 그린 다음 붉은색으로 채색하였다. 이곳 벽화는 북송대 백묘화(白描畵) 전통을 따르면서도 관모와 얼굴, 가슴 부분의 폐쇄 등에는 비교적 선명한 붉은색이 칠해져 있어 백묘가 자아내는 담백한 분위기와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침수 때문에 묵선과 채색 등이 씻겨져 대부분 벽화는 분명하지 않으나 북벽의 인물 정좌상과 동·서 벽면의 입구 가까이에 그린 인물 입상 및 천정의 별자리 그림은 잘 남아 있었다.

12지신상은 기존 양식과는 배치법에서 다를 뿐만 아니라 앉은 모습의 좌상(坐像)과 서 있는 입상(立像)을 혼용하고 있는 점에서도 많은 차이를 드러내었다. 우선 12지신 배치법은 북벽 동쪽에서 시작하여 시계방향으로 동벽-> 남벽-> 서벽을 거쳐 북벽의 서쪽에서 끝나는 방식을 따르되, 북벽과 남벽에 각각 2구씩 그리고 동벽과 서벽에는 각각 4구씩 배치하는 것이 기본 배치방법이었다. 또 관모 위에 동물의 형상이 있고 입상의 모습을 한 것이 공통된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 벽화묘의 배치법은 북벽에서 시작하여 시계방향으로 십이지신상을 배치하되 북벽에는 자 1구만을, 동벽에는 축인 묘진 사 5구를, 남벽에는 오 1구만을, 그리고 서벽에는 미 신 유 술해 5구를 각각 배치하였다.

또한 북벽 쥐[子], 남벽 말[午]의 단독상과 동벽 첫 번째인 소[丑], 서벽 마지막인 돼지[亥] 상은 좌상으로 표현되고 동·서벽의 10구 중 2구를 제외한 8구는 모두 입상으로 표현되어, 좌상과 입상을 혼용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동벽의 축상과 서벽의 해상은 북벽의 자상을 보좌하도록 하듯이 좌우대칭을 이루며 좌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북벽에 그려진 자상이 가장 중요하고 또 비중이 제일 크게 다루어졌다. 곧 북벽 중앙의 정좌상(正坐像)인 물이 이 묘의 주인공인 피장자로 추정된다. 전통적으로 북침장(北枕葬) 묘제에서는 북벽이 제일 중요하게 간주되어 왔다. 또한 인물마다 들고 있는 홀(笏)이 북벽 인물로부터 서벽의 5명은 왼쪽 어깨쪽(오른쪽), 동벽의 5명은 오른쪽 어깨쪽으로 그려져 있어 북벽 정좌상을 출발로 시계방향으로 표현되어있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십이지신상은 공민왕릉에서도 종래와는 달리 남벽을 제외한 3벽에만 그려 넣은 것을 본다면 이전의 배치법이 14세기에 와서 변화를 겪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천정에는 장방형의 큰 판석 3장을 덮었는데 중앙에 덮은 천정석 안쪽 면에 굵은 양각선으로 커다란 원을 그려 천공을 표현하고, 그 안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북두칠성 삼태성 북극성을 음각하였다. 별들은 알개 음각한 동그라미에 먹선으로 테를 돌리고 그 속에 백회를 메꾸듯 칠하여 그렸다. 북두칠성은 7개 별을 평행 먹선 사이에 백회를 칠한 원 선으로 연결하여 국자 모양의 별자리를 표현하였고, 삼태성은 3개 별을 일정한 사이를 두고 길이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이들 모두 북쪽의 별자리들만을 그린 것도 흥미로운데, 북쪽이 죽음과 가장 관계가 깊은 현무(玄武)의 방향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이처럼 4벽에는 12지신상을 그려 넣어 묘의 수호를 맡게 하고, 천정에는 별들을 그려 넣어 죽은 이의 영혼이 향하게 되는 천상의 세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묘의 내부를 일종의 소우주적 공간으로 간주하던 삼국시대 이래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유물은 대부분 도굴당하였기에 중국 당송시대의 동전(주조 시기가 가장 빠른 開元通寶부터 가장 늦은 政和通寶까지 13종 43점)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이 묘는 발굴 당시 학계와 언론의 적지 않은 관심을 끌었다. 분단 이후 남한에서는 매우 드문 고려 벽화고분인 데다가 특히 묘의 주인공이 고려말기의 문신인 창화공(昌和公) 송재(松齋) 권준(權準 1281~1352)이라는 사실을 새긴 묘지석(墓誌石)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즉 발굴조사 중이던 1991년 4월 그 분묘 서남쪽 모퉁이로부터 남쪽으로 80~130m 떨어진 지점의 땅속에서 네 조각으로 분리된 묘지석이 나오고 분묘 내부에서도 그 석편(石片)들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석편들을 합쳐보니 하나의 묘지석으로 복원되었다.

복원된 묘지석은 가로 54.3cm, 세로 100.2cm, 두께 3.7cm의 규모로 청석 재질로 보이며, 앞면에만 글자가 새겨져 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27줄, 한 줄에 48자씩으로 총 약 1,300여 자이나 25자 정도는 결실이나 마모 등으로 판독하기 어려운 상태다. 가로 14째 줄에서 ‘신(辰)’ 자가 다른 줄보다 1단 윗편에 새겨져 있는데, 이는 황제 지위의 존엄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묘지석에는 가장 상단에 ‘증시창화권공묘명(贈諡 昌和權公墓銘)’이란 제액 8자가 전서체(篆書體)로 가로로 쓰여 있고, 그 아래의 제목과 내용은 ‘유원고려국 삼한백성공신 삼중대광 길창부원군 권공묘지 명병서(有元高麗國三韓壁上功臣三重大匡吉昌府

院君權公墓誌銘并序)’란 제하에 해서체(楷書體)로 세로로 쓰여 있다.

공의 생전 행적과 함께 증조 조 부 및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의 가보(家譜) 그리고 장지(葬地)를 생전에 선정하여 분묘를 조성한 경과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즉 묘지를 처음부터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이 출한 해는 지정(至正) 임진년(공민왕 1년, 1352)으로, 공의 나이 72세 때다. 묘지명은 공의 문인이자 대제학 초은 이인복(李仁復)이 짓고, 공의 장손이자 보문각 제학 현성군 응(鏞)이 쓰고 제액한 것이다.

내 24대조이기도 한 창화공은 어떤 분이었을 까? 공은 문성공 회헌 안향(安珦 1243~1306)의 수제자인 문정공(文正公) 국제(菊齋) 권보(權溥 1262~1347)의 큰아들이다. 우선 국제 문정공에 대해 살펴보면, 충렬왕 2년(1276) 15세 때 진사에 오르고 18세에 임금 앞에서 보는 염전시(簾前試)에 급제하였으며 이듬해 다시 전시(殿試)에 등과하였다. 충렬 충선 충숙 충혜 충목의 다섯 왕을 섬겼으며, 품계는 정1품 삼중대광에 이르고 관직은 대우문(大右文 대제학)·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에 이르렀으며 작위는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으로 봉해졌고 추성익조동덕보리공신(推誠翊祐同德輔理功臣)의 호가 하사되었다. 정방(政房)에 13년 동안 있었고 재상 지위에 22년 머물렀으며, 일찍이 원나라 정동행성의 원외낭중(員外郎中)으로서 왕부 단사관(王府斷事官)을 역임하였다.

또한 원나라에서 성리학을 처음으로 도입한 안향은 그 적전 전통을 국제공에게, 국제공은 이를 사위 이제현에게, 이제현은 이를 이색(李穡) 정몽주(鄭夢周) 한수에게 전하여 우리나라 도통(道統)이 그로부터 전승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충렬왕 30년(1304) 5월에 안향의 건의에 따라 국학에 쓰이는 자금을 보조하기 위한 석학전(瞻學錢)이 설치되자 국제공은 재물을 희사하여 도왔으며, 당시 관학의 장학재단인 양현교(養賢庫)가 고갈되어 유생들을 돌지 못하고 유학이 날로 쇠퇴하게 되자 안향이 이를 크게 걱정하니 6품 이상 관원은 은 1근, 7품 이하는 포복을 내되 직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출연케 하여 양현교가 인재를 양성할 자원으로 삼도록 발의하였다. 충렬왕 32년 안향이 서거하자 국제공은 소복을 입고 동문인 관학 칠관(七館)과 사학 십이도(十二徒)의 수백 명 후학과 더불어 후한 예로써 장례를 치렀다. 당시 불교가 성하여 성리학을 아는 이가 드물던 시절에 국제공이 이를 개연히 한탄하고 충숙왕 2년(1315) 『사서집주(四書集註)』를 간행할 것을 건의하여 두루 감속하게 하니, 동방 성리학이 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충숙왕 5년 9월에 공자의 모형[塑像]을 제작하는데 사재를 희사하였고, 이듬해 6월 안향을 문묘에 종향하는데 앞뒤로 많은 힘을 기울였다. 이처럼 국제공은 우리나라 성리학 발전의 선구적인 학자였다.

그뿐 아니라 충숙왕 4년 『세대편년절요(世代編年節要)』와 『본조편년강목(本朝編年綱目)』을 민지(閔漬)와 함께 편찬하였고, 충숙왕 13년에 장자 창화공이 지공거로서 문생을 이끌고 현수(稱壽)하니 국제공이 국조의 문신(門先)과 좌주(座主)들의 글을 모아 『계원록(桂苑錄)』이란 책을 만들어 간행하였다. 충숙왕 17년에는 이인로(李仁老 1152~1220)의 시문집 『은대집(銀臺集)』 20권을 주해하였는데, 보는 이들이 그 해박한 식견에 감복하였다. 충혜왕 복위 3년(1342)에는 큰아들 창화공과 사위 이제현의 도움으로 여대 효자 64인을 기리는 『효행록(孝行錄)』을 완성하였는데, 조선 세종 때 충신과 열녀를 더하여 ‘삼강행실’이라 명명하고 현손 호당 채(蔡)가 왕명으로 서문을 지어 발간하였으며, 정조 연간에 이를 증보하여 『오륜행실』이란 이름으로 간행 발표하였다.

한편 국제공은 17세 때 문화 류씨 지침의(知僉議) 승(陞)의 딸이자 시중(侍中) 문정공 경(暉)의 손녀를 부인으로 맞이하여 5남 4녀를 두었다. 장남 준(準)은 시호는 창치로 삼중대광 찬상시 길창부원공이며, 차남 종정(宗頂)은 출가하여 대선사에 이르고 양기도총섭 직위를 받았으며 광복군(廣福君)이며, 3남 고(皐)는 시호는 충정(忠靖)으로 삼중대광 검교시중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이며, 4남 재(載)는 뒤에 충선왕이 아들로 삼아 왕후(王后)라는 성명을 내려주었고 시호는 정헌(正獻)이며 삼한백성 영도첨의 계림부원대군(鷄林府院大君)이며, 5남 겸(謙)은 삼중대광 판삼사사 복안부원군(福安府院君)이다. 장녀는 판서 안유충(安惟忠)에게 출가하고, 차녀는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 익재 이제현(李齊賢)에게 출가하였다. 충렬왕 27년(1301) 국제공이 지공거(知貢擧)로 이제현 등을 발탁하였는데, 이제현을 한번 보고는 그의 원도(遠到) 기량이 깊은 줄을 알아보고 유달리 아끼며 딸을 그 아내로 삼게 하였다. 3녀는 왕실 종친 정순부원군(正順府院君) 왕숙(王肅)에게, 4녀도 왕실 종친 회안대군(淮安大君) 장순공(莊順公) 왕순(王珣)에게 출가하였다. 이에 영가부원군 국제공과 다섯 아들 그리고 세 사위 모두 봉군되어 세상에서 ‘일가 구봉군(一家九封君)’이라 일컬었다. 충혜왕 복위 2년(1341) 국제공이 아순경시



(兪孫慶詩)를 지었는데, 팔순에 이르도록 부인과 해로하며 내외의 여러 손자와 증손자 남녀가 1백여 명에 달하고 조정에 들어가 벼슬하는 자순만 60여 명이었다. 당시 사람들이 오복을 누린 당나라 곽분양(郭汾陽 697~781, 이름은 子儀)에 비유하였다. 85세 때인 충목왕 2년(1346) 가을에 병환이 들더니, 윤10월 25일에 이르러 좌우에 명하여 부축해 일으키라 하고는 단정히 앉아 고종하였다. 11월에 문정공(文正公)이란 시호가 내려졌고, 유사에 명하여 장사를 크게 돕게 하여 정유일 장례를 행하였다.

구봉군과 함께 권문의 또 다른 자랑인 사시(四始)는 국제공의 셋째 아들 충정공 고(皐)의 후손에서 이루어졌다. 그 셋째 아들 정간공(靖簡公) 희(僖 1319~1405)는 태조 3년(1394)에 기로소의 효시인 후거영회(後耆英會)가 창설되자 첫머리에 수록되니, 곧 기로소(耆老所)의 창시이다. 정간공의 넷째 아들이 권문 최고의 학자라 할 문충공(文忠公) 양촌 근(訥 1352~1409)이다. 태조 원년(1392) 7월 고려의 제도를 본받아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을 설치하고 대학사 2명을 두었다가 태종 원년(1401) 7월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나누며 예문관 대제학을 1명으로 하였는데, 양촌이 최초로 대제학 곧 문형(文衡)이 되었다. 정간공의 막내아들이자 양촌 동생인 매헌 우(遇)의 차남 일재 채(琛 1399~1438)가 세종 8년(1426) 12월 처음 시행하는 호당(湖堂)에 첫째로 뽑혀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또한 정간공의 손자로 양촌의 차남인 문경공(文景公) 지재 제(題 1387~1445, 초명 蹈)가 중국 소씨보(蘇氏譜)를 참고하여 처음으로 편찬하고 뒤에 그 차남 익평공(益平公) 소한당 남(擘 1416~1465)이 보완하고 이를 양촌 외손 문충공(文忠公)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이 마무리하여 성종 7년(1476)에 간행한 것이 우리나라 족보의 효시 성화보(成化譜)이다. 그뿐 아니라 지재 소한당 부자가 문과 장원을 하였으며, 양촌 지재 소한당은 3대 문형이었고 양촌 외손인 서거정도 대제학이었음은 특기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창화공에 대해 알아보면, 공은 증조 충헌공(忠憲公) 위(巍)와 조부 문정공(文淸公) 단(坦) 그리고 부 문정공에 이어 4대에 걸쳐 과거에 급제하였다. 충렬왕 33년(1307) 원나라 연경에 갔는데 거기서 왕자 시절의 충선왕(忠宣王)이 만나보고 기뻐하였으며, 귀국하여 왕이 되자 대언(代言)에 발탁하였다. 이후 충선왕의 은우가 깊어 하사받은 것도 많았으며, 또 공의 셋째 아우 재(載)를 양자로 삼고 왕후(王后)라는 성씨와 이름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충숙왕(忠肅王) 때에는 원나라 조정과의 여러 외교업무에 공에게 맡겨 자주 원나라를 왕대하였다. 한때 불령한 무리가 충숙왕을 모함하여 심양왕(瀋陽王) 고(高)에게 왕위를 넘기도록 책동하였는데 많은 사람이 심양왕에게 붙었으나, 의리를 지켜 변하지 않았다. 뒤에 공의 손녀(장자의 장녀)가 충숙왕의 수비(壽妃)가 되었다. 충숙왕의 종에는 남달라서 12년(1325) 봄에 개경의 옛 국자감 곁에 있는 한천(寒泉)의 안향 구택을 국신도감(國璽都監)에 명하여 은 50근으로 사서 공에게 하사하니, 부친 국제공을 효양하며 강학자로 삼아 많은 문하생을 배출하였다. 공은 이미 우간의대부(右議議大夫 사간) 한림학사(翰林學士)와 대우문(大右文 우문관 대제학) 등을 지냈던 만큼 학문과 문장이 높았다고 하겠다. 후일 심양왕을 옹립하려는 조적(曹頤)의 변란이 진압되자 충혜왕(忠惠王) 복위 1년(1340) 길창부원군으로 진봉되어 부원군 청사를 열고[開府] 관원을 두게 되었으며, 공의 외손녀가 왕비로 들어졌으니 화비(和妃)이다. 충목왕(忠穆王)이 흥서하자 공은 원로대신들과 함께 원에 상서하여 공민왕(恭愍王)을 왕으로 세울 것을 청하였다.

또한 선부군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던 공은 충숙왕 13년(1326)에 지공거로서 문생들과 더불어 부친 국제공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회합을 열고 부친과 더불어 『계원록(桂苑錄)』을 편집하였으며, 충혜왕 복위 3년(1342)에는 국제공을 도와 『효행록(孝行錄)』을 편수하였는데 매우 이제현의 서(序)와 찬(贊)이 있다. 후에 공의 둘째 아우의 손자 양촌 근(訥)이 주해와 발문을 달았다.

공민왕 1년(1352) 여름에 공이 병들자 왕이 보낸 의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나 7월 을유(14일)



에 졸하니, 왕이 크게 슬퍼하여 조회를 정지하고 유사에게 명하여 예를 갖춰 장례를 치르게 하였으며 시호를 창화로 내렸다. 32일이 지난 8월 병진(16일)에 창화사동(昌和寺洞) 곧 지금의 장단군 서곡리 자효사(慈孝寺)의 서쪽 언덕에 장사지내니, 공의 뜻이었다. 공이 매우 부귀하여 그 풍요로움이 지나쳤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으나, 배푼기를 너그러이 하여 생전에 폐사된 지 오래된 자효사를 중수하였으며 또 30여 년 동안 10명의 스님에게 아침식사를 공양함으로써 적덕하고 인연을 맺기도 하였다. 일찍이 절을 중수할 때 후일 이곳에 장사 지낼 것을 유지로 남겼다.

공의 묘소는 벽화가 그려질 정도로 성대히 예상되었는데, 뒤에 봉사손이 거듭 화를 당하는 바람에 실전되기에 이르렀다. 바로 공민왕 23년(1374) 왕이 죽임을 당하는 시해사건이 일어나자, 자제위(子弟衛)에 소속된 공의 증손 진(璉)도 이에 연루되어 주모자 흥윤 등과 함께 효수당하고 가산이 몰수되었다. 진의 부친 곧 공의 장손으로 묘비명을 썼던 응(鏞)은 원주로 유배되었다가 우왕(禰王)이 보낸 사람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그뿐 아니라 공의 두 아들 중 장남 현복군 형(衡, 초명 廉)은 앞서 졸하였고, 차남 원정공(原靖公) 적(適, 23대조)은 가문의 혼공으로 관직에 나가 홍건적 침략 때는 공을 세위 단성보 절의대공신(端誠保節翊戴功臣)에 책록되고 1품에 오르며 길창부원군으로 진봉되었으나 이 사건으로 파직되었다. 결국 공민왕 시해사건으로 집안이 풍비박산 났던 것이다.

끝으로 한상질 묘역에 공의 묘소가 자리 잡은 연유는 무엇일까. 공이 하사받은 안향 구택에 한상질의 부친인 문경공 유양 한수(韓脩 1333~1384)가 들어와 살았다고 전한다. 한수는 바로 공의 차남 적(適)의 딸과 결혼하여 한상질(韓尙質 ?~1400)과 영의정을 지낸 한상경(韓尙敬) 등 4남을 두었다. 한상질은 이성계가 세 왕조를 세우자 주문사(奏聞使)를 자청해 명나라에 가서 ‘조선(朝鮮)’이라는 국호를 승인받아 온 인물이며, 압구정 한명회(韓明澮)의 조부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손서인 한수가 피하로 몰락하여 숨어지내는 처가의 뒤를 수습해 그 제사를 잇고 처조부인 공과 처증조부인 국제 문정공이 살며 강학하던 유서 깊은 집에서 세거하며 그 집안이 공의 묘역도 수호 관리하며 차남인 한상질의 묘를 썼다고 여겨진다.

이 벽화묘는 고려시대의 묘제는 물론 인물화나 복식 등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라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묘지석은 주인공과 함께 벽화의 편년을 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석학 등에도 귀중한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2001년 12월에 파주시 향토유적 제16호로 지정되었다. 아울러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고려사” 열전제20.

“파주 서곡리 고려벽화묘 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3.

“안동권씨 추밀공실기” 해토이, 1996.

“안동권씨 국제공실기” 동 편찬위원회, 2001.

“남한의 고분벽화”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